

心身同一論에 대한 論評(1)

曹 升 玉

(陸 士)

1. “심신동일론은 현대판 유물론이고, 자연과학의 비약적 발전에 영향을 받은 이론이다”는 주장은 동일론의 일반적 성격을 비교적 잘 지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으로 인하여 동일론은 두가지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는 唯物論에 대한 공격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론자체 (동일성의 논리적 구조)에 대한 공격이다.

(1) 엄밀히 말해서 심신동일론은 유물론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독립해 있다. “감각과 두뇌 상태는 동일하다”는 주장과 “동일한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주장은 별개의 것이다. 가령 “여기 있는 이 장군은 바로 옆집에 살던 장난꾸러기 소년이다”는 동일성 진술에서 “장난꾸러기-옆집-소년이 누구인가?”와 “이 장군은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상이할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실은 이 장군이다”고 답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 “실은 그 소년이다”라는 대답이 가능하다. 그래서 “동일한 것이 실은 정신적인 것이다”해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 “동일한 것이 中立的(Neutral)인 것이다”해도 마찬가지이다(Bernstein, 204). Strawson은 후자의 입장을 취해 동일론(일원론)에는 同意하면서도 기본적인 존재를 물질로만 보는 唯物論에는 반대하고 있다(Cornman, 1971, 16). 결국 심신동일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물론의 입장에서 서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 동일론이 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면서부터 동일성 관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 김재권 교수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일론의 事實的(經驗的)內容은 오직 $\psi - \phi$ 대응적 상관관계(Corresponding correlation) 뿐이다 (Kim, 81). 그러나 두 事態(event나 state를 통칭)가 상관적 관계에 있다는 주장과 이 두 事態가 동일하다는 주장은 별개의 것이다.

□ 曹升玉

상관관계에 있는 두 사태를 동일하다고 하는 주장에는 경험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도 없다. 그 이유는, 동일론이 병행론, 상호작용론, 양면(double-aspect) 이론에 반해서 경험적 가설이 아니요, ψ -진술과 ϕ -진술간에 번역가능성, 同義語性이 없기 때문이다.

(3) 동일론은 자연과학이 이룩한 비약적인 발전의 결과로부터 나왔다는 주장에도 의문이 있다. 동일론자들은 “과학-승배”미신에 눈이 멀어 명백히 모순되는 심신동일성을 설교하고 있다는 반역론자들의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Dennett, 252).

이런 반대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감각은 두뇌 상태와 동일하다”고 할 때 동일론자는 단지 “사실상 감각은 두뇌 상태와 동일함이 드러날 것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Bernstein, 1968, 204). 이에 따르면 동일론은 과학이 밝혀지도 못할 부정확한 미래를 성급하게 現在化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동일론자인 Feigl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최근 生物學, 生理學, 神經生理學이 이룩한 발전에 감명되어 나는 생물학과 심리학에 대한 物理主義的 연구 계획이 성과가 있다고 강력히 믿고 싶다”(Feigl, 376).

동일론의 논거가 어떤 증거적 확증에 있기보다는 과학의 발전에 대한 믿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일론은 이미 믿음에 근거를 둔 不實한 전제들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와우아파트’와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2. “몸의 실체는 있으나 마음의 실체는 없기 때문에 마음은 몸과 연결될 수 없다. 따라서 신체적인 현상과 심리적인 현상을 구별해서 二元論의 입장을 취하되 이런 구별이 본질적이 아니고, 심리적 현상은 신체적 현상의 일종이다”는 소홍렬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우선 두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實體만이 상호 연결 또는 관계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엄연히 구별되는 두 현상을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 컴퓨터가 작동할 때와 작동하지 않을 때의 무게는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는 물질적인 실체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컴퓨터의 물질적 상태의 변화로부터 非物質的인 output이 나오며, 이 output은 feedback 작용에 의해서 물질적인 상태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2) 김교수는 엄연히 實在하는 心理的 事態들을 제거함이 없이 동일론이 옹호되려면 $\psi-\phi$ 사태 간에 ‘엄밀한 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엄밀한 동일성을 定式化하면, $(x)(y) [(x=y) \supset (F)(F_x \equiv F_y)]$ (Rorty, 175). 이에 따르면 “두뇌 과정과 같은 물리적 과정들이 회미하다, 사라지고 있다, 괴롭다거나 혹은 거짓이라고 하고, 殘像들과 같은 심리적 현상들이 공공연히 관찰될 수 있다, 물리적이다, 공간적으로 위치될 수 있다거나 혹은 빠르다”고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범주오류를 범한 무의미한 표현이 될 것이다 (Cornman, 1968, 77).

이는, 심리적 현상들은 그에 특이한 심리적 술어들에 의해서 기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심리적 사태들은 그에 특이한 심리적 속성들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태들을 심리적인 것으로 확인하고 꼬집어 낼 수 있겠는가?

한가지 부연해 두고자 하는 것은 언어적 현실을 외면한 심신이론은 매우 공허하고 편협한 이론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3. 김교수의 존재론적 동일론은 ‘事態’개념에 대한 그의 특이한 分析에 기초되어 있다. 따라서 김교수의 ‘사태’는 그의 동일론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핵심 개념이 된다.

(1) 김교수에 따르면 “a is F”의 단칭진술은 a’s being F 라는 사태를 기술 또는 지시한다. 즉, $[(x_n, t), p]$ 는 “ (x_n) has P at t”에 대한 유일한 (the) 동명사형 명사구가 된다. $[(Socrates, t), drinks hemlock]$ 은 “Socrates’ drinking hemlock at t”로 된다(Katz, 428).

그러나 “Socrates drank hemlock at t”의 동명사형 명사구인 “Socrates’ drinking hemlock at t”에서 “a drinking of hemlock by Socrates at t”와 “Socrates at t”와 “Socrates’ drinking of hemlock at t” 두 구절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증대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후자와는 달리 singular term 이 아니다(Katz, 429).

(2) 김교수에 따르면 사태들 간의 동일성 조건은 사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동일성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x, t), P] = [(y, t'), Q] \text{ if and only if } x=y, t=t', P=Q$$

그러나 사태를 구성하는 속성의 次元에 문제가 있다.

□ 曹升玉

(1) Oedipus' killing of his father

(2) Oedipus' committing patricide 는 동일한 사태들이다. 왜냐하면 두 속성(Killing of his father 와 committing Patricide)이 같기 때문이다.

(2)는 일차원적 사건이므로 (2') [(Oedipus, t), Commits Patricide] 따라서 (1)도 1 차원적 사건이다.

(1')[(Oedipus, t), kills his own father]

그런데 반대로 (1)은 다음 사건과 동일하다.

(3) Oedipus' killing of Zaius

(3)은 2 차원적 사건이다.

(3') [(Oedipus, Zaius, t), kills]

그렇다면 (1)은 2 차원적 사건이어야 한다.

(1' ~) [(Oedipus, his father, t), kills]

(1)은 일차원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2 차원적 사건이 되는 모순을 범한다(Katz).

(3)부사적 수식구의 문제

(4) [(Caesar, t), dies]

(5) [(Caesar, t), dies violently]

이 두 사태는 비록 동일한 개체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속성은 다르다. 橫死者들의 집합은 死者들의 下系合(subset) 이다. 김교수에 따르면 (4), (5)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태와 동일하게 된다.

(4') the death of Caesar at t .

(5')the violent death of Caesar at t .

(4')와 (5')는 동일한 사태가 아니다.

(4')와 (5')를 구성하는 개체와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공간적, 시간적 특성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4')와 (5')가 서로 다른 속성들로 구성된 사태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두 사태를 구별해 줄 확고한 근거가 없게 된다.

(4')와 (5')의 속성이 다르다고 한다면, "Brutus' stabbing Caesar," "Brutus stabbing of Caesar with a sword", "the fatal stabbing of Caesar by Brutus" 는 각각 사태를 구성하는 속성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서로 다른 사태가 된다.

4. 김교수는, 사태 동일성은 속성(술어)들의 동일성을 필요로 한다는 그 자신의 약정된 규칙으로 불필요하게 문제를 약화시켰다고 Williams 는 지적하고 있다. 열역학의 통계역학으로의 표준 환원이 독립된 원초적 가정들의 수를 줄인다는 데 김교수가 동의하는 한, 그가 한 기체의 T 온도하에 있음이라는 사태가 기체분자들의 대응한 운동에너지 E를 갖고 있음과는 다르지만 상관되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달성했다고 하는 질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Williams, 81).

< 참고문헌 >

Bernstein, Richard J. "The Challenge of Scientific Materialism," *Internatonal Philosophical Quarterly*, VIII, 2, 1968, 252-275. Reprinted in *Materialism and the Mind-Body problem*, Ed. by David M Rosenthal, Prentice-Hall, 1971, 200-222.

Cornman, James W. "The Identity of Mind and Body." *The Journal of Philosophy*, LIX, 18, 1962, 486-492. Reprinted in *Materialism and the Mind-Body Problem*, 73-79.

Cornman, James W. *Materialism and sensations*, Yale Univ. Press, 1971.

Dennett, D. C. "Current Issues in the Philosophy of Mind,"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Vol. 15, 1978, 249-261.

Feigl, Herbert, "The 'Mental' and the 'Physical'," in *Minnesota Studies in Philosophy of Science*, II. Ed. by Herbert Feigl, Michael Scriven and Grover Maxwell, Univ of Minnesota Press, 1958, 370-497

Katz, Bernard D. "Kim on Events," *The Philosophical Review* LXXXVII, No. 3, 1978, 427-441.

Kim, Jaegwon. "On the Psycho-Physical Identity Theory,"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III, 3, 1966, 227-235. Reprinted in

□ 曹升玉

Materialism and the Mind-Body Problem , 80-95.

Rorty, Richard, "Mind-Body Identity; Privacy, and Categories,"
The Review of Metaphysics , XIX, 1, 1965, 24-59. Reprinted in
Materialism and the Mind-Body Problem , 174-199.

Williams, Stephen. "Pains, Brain states and Scientific Identities?"
Mind , No. 345, 1978, 77-92.